

군산농기센터 제14기 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과 입학식 성료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23일 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과정 입학생 46명과 총동창회 임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입학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신소득작목 교육과정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농산물 소비

트렌드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소득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력 및 소득향상을 목표로 개설됐다.

농업인대학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0회, 102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신소득작목 과정 중에서도 특용작물, 아열

대 작물, 작물생리 및 병해충관리 등 분야별 작목 전문가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건강관리, 법률특강 등 문화 관련 강의 등을 편성해 기술교육에 편중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20년까지 13기에 걸쳐 514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박수현 기자

전북제일신문

2021/03/24 수요일
005면 사회



군산농업인대학 14기 입학식 개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23일 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과정 입학생 46명과 총동창회 임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입학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신소득작목 교육과정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농산물 소비트렌드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소득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력 및 소득향상을 목표로 개설됐다.

농업인대학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0회, 102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신소득작목 과정 중에서도 특용작물, 아열대 작물, 작물생리 및 병해충관리 등 분야별 작목 전문가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건강관리, 법률특강 등 문화 관련 강의 등을 편성해 기술교육에 편중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FTA 개방화에 따른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대학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해 합리적인 농업 경영 및 과학적인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2020년까지 13기에 걸쳐 514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군산=이현규 기자

釜山日報

2021년 03월 24일 수요일
014면 사람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14기 입학식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23일 농업인대학 신소득작목과정 입학생과 총동창회 임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신소득작목 교육과정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농산물 소비트렌드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소득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경쟁력 및 소득향상을 목표로 개설됐다. 농업인대학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회(102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특히 신소득작목 과정 중에서도 특용작물·아열대 작물·작물생리 및 병해충관리 등 분야별 작목 전문가를 초빙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법률특강 등 문화 관련 강의 등도 편성해 기술교육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

군산=이현규 기자